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10월 16일(수)
한우리 수요베이직 시작

10월 27일(주일)
성찬주일

11월 2일(토)
청년알파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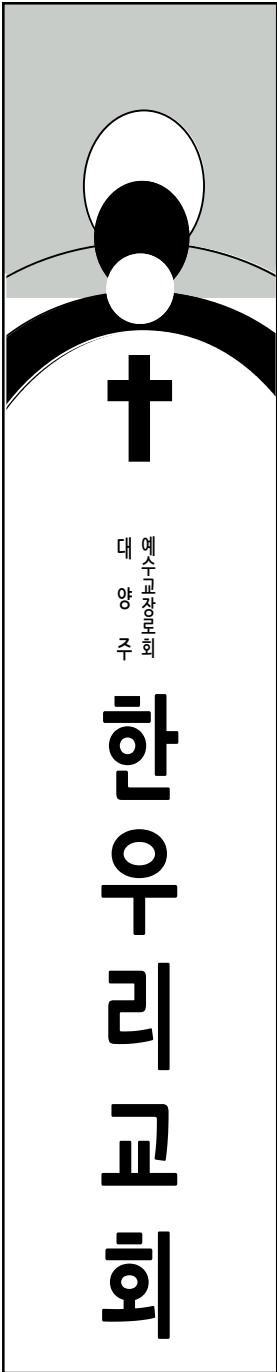
11월 6일(수)
사역/제자 훈련반 수료식

11월 9일(토)
새생명 알파축제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에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김진영 2부/최영두 3부/이성민 4부/김성진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함 께
내 마음의 한자리
- 봉헌 및 1부/ 조종면 장로 2부/ 최희식 권사 3부/ 김승기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눅 19:1-10 사 회 자
- 찬 양 2부: 주 예수 내맘에 오심 시온찬양대
3부: 하늘 보좌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팩트와 메시지 안현수 목사
- 찬 양 내 마음의 한자리 다 함 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김 준
대표기도
- 찬 양 내 맘에 한 노래있어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씬 고후 8:1-15 [역설의 복음 기] 김진영 목사
가난한 부자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손보영 장로 2부/ 이성열 장로 3부/ 채금희 권사 4부/ 최 선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

차세대 신앙교육
시리즈 8

말씀: 하늘 시민으로 살다

제목: 벧전 2:9-10

기도: 손영락 집사 (다음 주 기도: 김용희 집사)

설교: 이성민 목사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2주간 목장방학이 끝났습니다.
오늘(13일)부터 목자모임을 시작합니다
- 지난주 수요일 '한글교육세미나'는 한우리TV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fVpHdhNHVo>
- 4부 예배 가브리엘 찬양대 반주자 모집
 - 연습시간: 주일 12-2pm
 - 다음 주부터 바로 반주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섬길수 있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형지원 021 0294 5113
- 2025년 경배와 찬양으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1부 예배: 싱어/건반
2부 예배: 싱어/건반/베이스
3부 예배: 드럼/건반/일렉 기타
 - 문의: 김규영 집사 022 029 9838
카톡아이디 : DavidQkim

제32기 알파코스 섬김이 모집

- 섬김이 모임: 10월 15일 - 11월 5일(4주)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이 있을까?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와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길 원하시는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이종길집사 021 194 8008

수요예배 - 차세대 신앙교육 시리즈(10주)

날짜	주 제
10.16	정체성 (벧전 2:9-10)
10.23	사랑과 훈육
10.30	교회 공동체

교육부서 및 교육위원회

- 성탄 축하의 밤(12월 18일(수)) 준비모임:
부서별 실무 담당자를 선정해서 교육위원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꿈의 나라
친구초청 전도의 날 Light Party 10.27 10am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됩니다.

Term 4 사역 개강 안내

- 문화센터: 10월 14일(월) 오전10시
- 새싹학교: 10월 14일(월) 오후4시
- 평생교육원: 10월 15일(화) 오전10:30
- 엄마랑아가랑: 10월 16일(수) 오전10:30

한우리 수요베이직

10월 16일, 23일, 30일 & 11월 13일

7시	수요예배		
7:45	기도 베이직 (교회카페)	찬양 베이직 (비전홀)	전도 베이직 (조이홀)
	이요한목사	이성민목사	안현수목사
8:15	5, 청년부	1, 2교구	3, 4교구
	*교구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부

- 전교인 거리전도: 오후 3시 브라운스베이
스타벅스 커피숍 건너편에서 있습니다.

월	일	목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10	13	아베스 / 바울로마 / 주일 여자제자반
	20	스칸디나비아동행 / 바나바
	27	바누아투푸른 / 블라디보스톡

교우동정

- 소천
최석순(조효정)집사가 지난 11일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G Bm7 G/B C G D/F#

우리들을 위하여 - 십자가에 못 박혀 -
 어떤 일이 있어도 - 나를 버리지 않고

5 1.Em7 Bm7 C Am7 Dsus4 D

모든 죄를 - 용서하시 - 의인 삼아 주신 주 -

9 2.Em7 Bm7 C Am7 Dsus4 D

죽기까지 - 사랑하신 - 나의 귀한 - 예수님 -

13 G Bm7 Em7 C G/B

내 마음의 한 자리 - 가장 귀한 그 자리 -

17 1.Am7 Bm7 Em7 Asus4 A7/C# Dsus4 D7

주오셔서 - 앉으소서 - 주님 만나의 보배 -

21 2.Am7 Bm7 Em7 Am7 D G

주오셔서 - 다스리소서 - 주님 만나의 영광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데오	1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21575899	온유	39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40 인도네시아	채계섭	21424199
	3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41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42 도우라안다옥	황용선	21399603
	5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3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6 드레스덴	여승재	0211030655		44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소망	7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무지개	45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6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9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7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10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8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1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임마누엘	49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사랑	12 아베스	김영주	21919163		50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3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51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4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52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15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53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6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4 양익문	조종면	275325423
다윗	17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5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8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6 오클랜드	장태용	224695511
	19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7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20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8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21 칠레파타고니아	김호준	221996630	약속	59 일본	손동욱	212043531
빛	22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60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61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가나	이광일	212179303		62 LA	정두련	211365151
	25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63 서울	김태성	211499624
	26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64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27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5 산토	조기동	2102370987
	우리	28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믿음	66 네팔 은혜
29 엘림		이명준	272970117	67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과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8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1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9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월드 모로코		윤수정	272008546	70 아버가일	안경욱		2102913234
33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71 오병이어	최병한		212136995
참빛	34 벨엘	신규식	21417756	성결	72 웰링턴	이중훈	21781999
	35 모스크	노희영	274308322		73 에벤에셀 MercyShip	이민수	21810072
	36 섬나 호치민	나중엽	21386202		74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37 잇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5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38 통가	송정순	2102562581		76 예루살렘	박경남	274325524
교구	초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팩트와 메시지 (눅 19:1-10)

이 세상은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팩트(Fact)'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안에 '메시지(Message)'를 담아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시죠. 예수님과 삭개오의 서로를 향한 간절함은 삭개오가 단순한 팩트에 머물지 않고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1. 카톡 프로필 사진을 공개합니다. 그것의 팩트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 삭개오와 예수님의 모습이나 행동에서 각각의 팩트는 무엇이며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참고. 세리장 / 여리고 통과 / 돌무화과 나무 / 삭개오의 집에 유하심 / '삭개오', etc.)
3. 여러분의 삶가운데 사람이나 상황에서 보이는 팩트에만 몰두한 적이 있으셨나요? 반대로, 그 안에 숨은 메시지를 함께 깨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과거, 현재)
4. 삭개오와 예수님은 각자 무엇에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왜, 그리고 어떻게 간절하신지 나누어 봅시다. (4,5,10절)
5.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덧붙여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에콰도르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에콰도르, 가뭄에 화재까지 고통 가중

극심한 범죄에 시달리는 에콰도르 수도 키토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화재까지 겹쳐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27일 AF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 24일, 키토의 동쪽 외곽 지역에서 화재가 5건 발생해 6명이 다치고 100가구가 대피했다. 현지 경찰은 5건 중 1건의 화재를 고의로 일으킨 한 남성을 체포했다. 이번 화재는 3개월 이상 거의 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해 피해가 더 컸다.

에콰도르의 24개 주에서 20개 주는 가뭄으로 인해 적색경보를 내린 상태다. 에콰도르는 올해 들어 3,30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3만 8,000헥타르의 산림과 초목이 불탔다. 에콰도르는 극심한 갱단 범죄로도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마약 갱단과 정부 간 충돌이 심해지면서 살인율이 8배나 증가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한국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신의 존재’ 믿지 않는 한국인…
26개국 중 최하위권

최근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IPSOS)가 세계 주요 2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인의 종교의식 조사와 미국의 퓨리서치센터에서 동아시아 5개국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적 영성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넘버즈 254호’에서 한국인의 종교성에 대해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89%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72%,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43-45% 정도로 나타났다.

한국은 3명 중 1명 꼴인 33%로 26개국 평균(61%)보다 크게 낮았으며, 일본(19%)과 함께 조사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신앙 활동’ 역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종교적 환경에서 자랐으나 현재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성인의 비율은 한국이 35%로 102개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은 또한 조사 대상국 중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원처치).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에콰도르]** 오랜 가뭄과 화재로 고통받는 에콰도르를 보살펴 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그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 **[한국]**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우리가 예배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독교의 가치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